

문화재 도난 감시시설 대다수 고장?

국회 문관위 안형환 의원 시스템불량 등 문제점 지적

국보·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에 설치된 도난 감시시설 다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문화재 도난 위험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학 박물관 등 문화재 위탁보관기관 가운데 필요시설 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곳이 절반에 가깝다는 충격적인 조사결과도 잇따라 발표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안형환 의원(한나라당 서울 금천)은 '문화재정보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점검대상 134건 중 41%인 55건 문화재의 감시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9월 14일 밝혔다.

문화재청(청장 이근우)이 안 의원에 제출한 '2008 절단도난감시시설 현장점검 결과보고'에 따르면, 시스템 작동불량·보완이 필요한 곳은 태안사대바라(보물 제956호), 도립사래박물관(보물 제1341호) 등 25건으

로 가장 많았다.

비로사석조아미타불좌상(보물 제996호), 불영사영산화상도(보물 제1272호) 등 12건 문화재는 카메라 고장이, 수덕사목조삼세불좌상일괄(보물제1381호) 등 4건 문화재는 전원공급장치(UPS)불량이 지적됐다. 백담사목조아미타불좌상부부장유물(보물제1128호)는 녹화는 되나 화질이 불량했다.

특히 국보 제45호 부석사소조여래좌상은 카메라 24대 중 5대가 불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형환 의원은 "문화재에 설치된 첨단 도난감시시설의 관리 소홀로 문화재 보호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감시시설 절단화와 감시인력 확충 등으로 우리 문화재가 더 이상 훼손·도난 당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의원은 15일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이근우)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 '2008 위탁문화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

재 정기점검 결과보고'를 분석한 결과, 동국대박물관 등 61곳의 문화재 위탁기관 중 시설보완이 필요한 곳은 54%인 33곳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대학박물관 등에 위탁보관 중인 문화재는 8만 4885점이다. 안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금속류 등 취약재질 유물의 보존 처리가 필요한 15개 기관(부경대, 서

울대, 공주대 등)과 유물보존환경 확보를 위해 항온·항습기 등이 필요한 11개 기관(경주대, 경상대, 한양대 등)이다.

또 위탁품 수장공간이 부족한 곳은 8개 기관(경주대, 신라대 등), 보안시설이 미비한 7개 기관(광원대, 한림대 등)이며 충남대, 한림대 등에서는 위탁받은 문화재의 소재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안형환 의원은 "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위탁기관이 많아 소중한 문화재가 엉망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위탁기관 선정시 시설완비 유무를 확인하는 물론 사후관리도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예산 확보 등을 통해 문화재 도난 감시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보수·보완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종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황우석 선처를”

조계사, 탄원서 전달

서울 조계사(주지 세민) 스님과 신도들은 9월 14일 황우석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선처를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2만 명의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방법에 전달했다. 신도들은 이날 탄원서를 통해 “대한민국 국익과 중생의 생명을 위한 자비의 기술인 황우석 박사의 절기세포 연구가 정부로부터 다시 승인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호소했다. 1심 선고 공판은 10월 19일이다. 이상연 기자

베트남어교육원

한국어 영어 등 교육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KCRP) 산하 사단법인 종교평화국제사업단(IPCR, 이사장 최근덕)이 주관한 베트남 언어교육원이 8월 26일 개원식을 시작으로 베트남 한인 2~3세 및 현지 청소년들에게 한국어를 비롯해 영어, 컴퓨터 등 교육에 나섰다.

8월 26일 열린 개원식에는 최근덕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이사장을 비롯해 불교대표 환성 스님, 대한성공회 김근상 주교(서울교구장), 주 베트남 한국경영인협회(코창) 장충식 부회장, 언어교육원 사무엘 센터장 등 각 종단 대표 16명이 참석했다(사진).

베트남 교육원은 베트남 여성과 베트남인 참전 한국인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한인 2~3세(라이파이한)를 위한 학교로 베트남 호찌민에 세워졌다. 현재 라이파이한과 베트남 현지인을 포함해 총 30여 명의 학생이 수강하고 있다. 박선주 기자

‘하나됨’ 원네스 토론회 열린다

10월 30일~11월 1일 LG트윈타워서 컨퍼런스

“균형과 질서가 없는 갈등상태로 가득 찬 삶에서 ‘하나됨’의 상태로 돌아오면 사랑과 행복, 부와 건강이 자신 안으로 흘러들어온다.”



인도 원네스유니버시티의 최고 지도자인 아난다기리지.

불교 10년만에 종교와 수행법을 초월, 115개 국 1억5000만 여명의 삶에 변화를 주었다는 원네스(oneness)현상. ‘하나됨’을 뜻하는 ‘원네스’란 “인간을 포함한 우주 전체의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이며, 균형과 질서의 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원네스현상에 대한 대규모 강연 및 토론회가 서울에서 열린다.

한국을 처음 방문하는 인도 원네스유니버시티의 최고 지도자인 아난다기리지(Anandajiri)는 10월 30일~11월 1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동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하나됨으로 사는 삶’을 주제로 컨퍼런스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아난다기리지는 참가자들이 삶에 대한 법적으로 터득함으로써 부모와 배우자, 자식, 동료간의 관계회복과 치유를 가능케 하고 정신적 육체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물론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과 ‘하나됨’ 이루기로서 아가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줄 계획이다.

원네스 유니버시티 한국지부(www.onenesskorea.com) 자야(Jaya) 지부장은 “이번 컨퍼런스는 직업적 성공과 관계의 치유, 재정적 풍요로움, 육체적 건강 등을 포함한 외적 성취이든 내면의 평온과 깨어남이든 개인의 의식상태를 상승시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조종할 수 있도록 가장 진보적인 시스템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070) 8244-8020 김성우 기자

지구촌공생회, 국내 스터디투어

2003년 설립이후 캄보디아, 라오스, 몽골 등 해외 7개국에 식수 교육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송월주)가 10월 10~11일 국내 스터디투어를 떠난다.

이번 스터디투어는 지난해 실시했던 경우 역사문화탐방과 농업고택방문에 이어 세 번째로 목격되는 문경을 택했다. ‘문경으로 가는 길’의 프로그램

은 김홍사 템플스테이, 대승사 참배와 불교문화 및 한지공예 체험, 백석농원에서 사과따기, 석탄박물관 관람 등 다양하게 구성됐다.

이 프로그램은 내 것만 고집하는 사고를 버리고 개방적인 사고를 가져 자비를 실천하는 삶이 으뜸임을 깨닫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참가비는 회원 8만원, 비회원 9만원. (02)455-9596 박선주 기자

신계사 남북합동법회 어려울 듯

민추본, “조불련 회신 부정적” 밝혀

임진강 수난사고 발생으로 남북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명진, 이하 민추본)가 추진중인 금강산 신계사 성지순례 및 남북합동법회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추본이 최근 발표한 2009년 하반기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민추본은 신계사 낙성2주년을 기념하고 향후 재개될 금강산 관광의 무사안녕과 겨레의 염원인 조국통일을 기원하기위해 10월 12~13일 금강산 신계사 성지순례 및 남북합동법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경직된 남북관계 등의 문제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추본 박재산 기획홍보계장은 “조선불교도연맹(본부장 심상진, 이하 조불련)에 남북합동법회 등 관련 공문을 보냈었다. 9월 11일 조불련에서 온 회신은 ‘남조선이 방북에 대해 부정적이라 이번 법회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내용이었”다며 “현재 통일부는 방북의 문을

좁혀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안만 통과시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계장은 “통일부와 협의의 결과에 따라 예정대로 진행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는 시점까지 보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과는 “그 사안은 협의과정을 거치고 있어서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 정부에서는 남북관계 전체를 보고 같이 가지는 입장”이라며 “통일부는 추후 협의과정에서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추본은 △10월 초 통일정책포럼 ‘역사적, 불교적 관점에서 바라본 금강산에 관한 토론회’ △제2회 민추본 평화통일사전전(10월 7~9일 ‘나무’ 갤러리) △11월 ‘불교통일교육매뉴얼 제작 및 보급사업’ △민추본 창립 10주년(2010년) 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박선주 기자

나눔의집 김화선 할머니 기금 쾌척

지구촌공생회에 “생명의 우물”에 써달라”

“저는 이제 남은 여생을 나눔의집에서 편안하게 마칠 수 있지만 저 보다 못한 자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습니다.”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에게 기금을 전달하는 김화선 할머니(왼쪽).

사회복지법인 나눔의집(원장 원행)에서 거거하는 김화선(84) 할머니가 그동안 조

금씩 모아온 돈 70만 원을 캄보디아 ‘생명의 우물 사업’에 써달라면서 9월 17일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송월주)에 쾌척했다.

김화선 할머니는 1926년 평양에서 태어나 16세에 싱가포르에 위안후에도 서울, 부산, 인천을 돌아다니며 고생을 했다. 이후 김 할머니는 대전에서 남의 논밭 일을 하면서도 돈이 없어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대

학생 23명에게 남모르게 등록금을 대서 졸업 시켰다. 김 할머니는 “캄보디아에 다녀온 분들로부터 그곳 얘기를 듣고 기부할 마음을 냈다. 그런데 너무 작은 돈을 내 부끄러울 뿐”이라며 “젊은 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고, 주변의 없이 사는 사람들도 도와가면서 살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박선주 기자

생명나눔으로 함께하는 세상

제2회 생명나눔과 함께 하는 희망걷기

1. 일시: 9월 26일(토) 오후 1~5시
2. 장소: 월드컵공원 (평화의공원 내 별자리광장)
3. 코스: 월드컵공원 난지순환길(6km)
4. 참가대상: 환우와 가족, 개인 및 단체, 자원봉사단 기업봉사단 등 누구나
- * 참가비는 없으며 선착순 1000명에게 기념품 증정 예정
5. 접수기간: 9월 21일까지
6. 신청문의 및 접수: (사)생명나눔실천본부 02-734-8050 / www.lisa.or.kr

주최: (사)생명나눔실천본부, 현대불교 등 8개 불교인문사
후원: 행정안전부, BS HLA Lab, 녹십자의료재단, (주)은은, 서울메트로 안국역
모금계좌: 농협 053-01-271485 (사)생명나눔실천본부

(재) 대한불교 일불선교종 佛紀 2553年 全宗徒 法階考試

귀의 삼보하옵고 본 종은 석가모니부처님의 혜명을 받들어 비구, 비구니계율을 수지하며, 화합의 승단을 목표로 전종도 법계고시를 봉행한바, 원만히 회향하였음을 제방에 사립니다

◆총무원장: 화엄

◆고시위원장: 원 각 ◆고시위원: 법해, 용운, 덕봉

법계 품수자

경담, 경운, 고봉, 광은, 도광, 도정, 도안, 만성, 명희, 법경, 법승, 보월, 응주, 삼주, 상원, 석성, 수영, 승법, 지연, 지연, 지성, 해동, 현암, 해일, 해성, 혜수, 경담, 도원, 도허, 동청, 무착, 법광, 법상, 법연, 보해, 보현, 여산, 연화, 지운, 정률, 정일, 재성, 지명, 지운, 지현, 진송, 현담, 해월, 해월, 혜신, 혜원, 대월, 도우, 무상, 보은, 선광, 영산, 일명, 지명, 진을, 혜성, 도천, 무각, 보원, 보적, 성각, 일현, 정관, 지월, 흥련, 해정, 혜명

법계고시 입제일: 불기 2553(2009)년 9월 10일
법계고시 회향일: 불기 2553(2009)년 9월 11일
법계고시 장 소: 인천호불사

(재) 대한불교 일불선교종 · 총무원: 서울 강북구 인수동 440-27 엄지빌딩 4층 / 전화 02)998-8161, 2 전송 02)998-8384 / www.ilbung.org